

암석의 순환에 대한 중학교 과학 교과서 분석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1 교과서 17종을 대상으로

위수민 · 정진우 · 김윤지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 교과에서 암석이라는 주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걸쳐 지질학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과정에서 퇴적암, 5학년 과정에서 화성암, 6학년 과정에서 변성암을 학습하고, 7학년 과정에서 암석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암석의 순환 개념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1997).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과정에서 퇴적암과 화성암을 학습하고, 7학년 과정에서 변성암 등 여러 암석의 생성 원인과 함께 순환 과정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년에 개정 7차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 2010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적용된 17종의 과학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암석의 순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암석 순환의 구성요소에 대해 17종의 전 교과서에서 퇴적암·변성암·화성암을 포함하고 있고 마그마를 포함한 교과서도 16종에 달하지만, 퇴적물을 포함한 교과서는 13종에 지나지 않았다. 암석 순환의 과정에 대해 퇴적암→변성암, 변성암→퇴적암, 변성암→화성암, 화성암→퇴적암, 화성암→변성암의 5가지 과정은 17종의 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나, 퇴적암→화성암은 7종의 교과서에서 그리고 화성암→화성암의 자기 순환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5종에 불과하여 교과서마다 암석의 순환 과정을 표현한 모델에서 차이를 보여 통일되지 못한 과학적 개념을 표현하고 있었다.